

GYEONGNAM

2009.10 VOL.005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의회



2009 경남메세나 갤러리 출품사진 공모



귀사의 메세나활동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한 해 동안 진행되어온 귀사의 소중한 문화예술 활동 사진 등을 보내주십시오.
기업 내 문화예술 활동,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회사 기념일 공연 사진들을
'메세나 갤러리'에 전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소중한 순간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기업 홍보의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공모대상 : 경남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 사진
- 요청내용 : 2008, 2009년중 메세나 활동 사진 및 사진에 대한 설명
- 장 수 : 3장 이상
- 형 식 : JPG파일 1.5MB이상(디카 원본 사진이면 가능)
- 사진내용에 대한 짤막한 설명(50자 이내)을 함께 적어보내주세요
- 행사명/행사일시/참가인원/행사내용/행사성과 등
- 감상문구도 가능 (예시문 : 저 지휘자 아저씨 정말 폼나는걸!)
- 기업의 메세나 활동 사례
- 기업내에서 문화예술행사 개최
- 직원 및 직원 가족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
- 직원들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동아리 활동
-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진행
- 창립기념일, 송년회 등에 문화예술행사 진행 등
- 마감기한 : 2009년 11월 13일(금)까지
- 보내실 곳 : 이메일(gnmecenat@gnmecenat.or.kr)
웹하드(ID : mc0831 / PW : 0831) 「메세나 갤러리」폴더

2009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FESTIVAL & AWARDS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시상하고, 메세나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자리가 될 '2009 경남메세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 행사일시(예정) : 2009년 12월 초
- | 행사내용 : 특강(기업의 문화경영), 2009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경남메세나갤러리(사진전시) 등

CONTENTS

휴(休)	04
예술과 삶	06
결연식 스케치	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12
줌 인 메세나	20
예술과 여행	22
Hi Arts, High Five	26
예술의 희망이야기	28
문화와 나	30
예술단체 역량 강화 워크샵	32
지상강의	34
좌담회_경남메세나 2주년	38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42
문화파발마	45
회원소개	46



경남메세나 통권005호

| 발행인_문동성 | 발행일_2009. 10. 15.
| 발행처_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경남메세나협의회
| www.gnmecenat.or.kr | Tel_055-285-5611 | Fax_055-285-5610
| 편집인_손갑동 | 사진_최재균
| 기획·편집_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_055-296-4995
| 인쇄_(주)화성 Tel_055-295-4995

달 빛 반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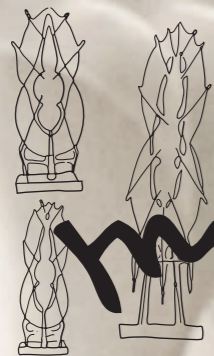
하 영

소나무가지에 걸린 달빛으로
정갈한 옷 한 벌 지어
숨 멎을 듯 그리울 때,
마음이 그대에게 가자고 할 때마다
꺼내 입으리

그 마음길,
대앞에 사운대는 바람소리
산짐승 울음소리 발자국소리는 물론
풀벌레의 숨소리까지 고이 써서
아스리한 하늘 저쪽
아득한 하늘길에 던져두리

저 옷 한 벌,
추운 이틀
바라만보아도 참으로 따뜻해지리

■ 하 영
1946년 경남 의령 출생. 1989년 『문학과 의식』 신인상으로 등단. 2000년 [아동문예문학상] 수상으로
동시 등단. 시집으로 『너 있는 별』, 『빙벽 혹은 화엄』, 『자귀꽃 세상』 등이 있다. 남명문학상 신인상,
경남예술인상, 경남아동문학상 수상 등의 경력이 있다.



조각가 문신, 그는 영감(靈感)의 노예였다.

글_ 이달균(시인, 칼럼리스트) / 사진_ 문신미술관

합포만이 보이는 문신미술관

봄 햇살이 마산바다 한가운데서 풀잎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술관 트랙에도 매화가 바다를 불러올립니다
전시실 '흑단'을 적시는 파도소리가 들립니다
마산바다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입니다
.....(이하 생략).....

- 이광석 <문신미술관에서> 부분

시인 이광석은 문신미술관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있다. 파도소리는 선생이 즐겨 조각하던 단단한 흑단 작품의 귀 어귀까지 차올라와 출렁인다.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마산바다라고 말한다. 선생을 떠나보내고 외로운 바다이기에 이곳으로 파도소리를 울려 보낸다. 하지만 지금은 외려 그 영혼이 바다를 다독여 준다. 선생은 스스로 마산이 되어 바다와 미술관, 도시의 하늘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고 시인은 힘주어 말한다.

한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짧은 글 속에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조각가 문신 같은 거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필자는 문신에 관한 책들을 뒤적이면서 본인이 말한 어록들에 주목하려고 했다.

“나는 노예처럼 작업하고 서민과 같이 생활하고 신처럼 창조한다”
이 말은 문신선생이 작품을 대하는 좌우명이다. 주어진 ‘나’를 빼면 모든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된다. 이 말은 바로 선생의 생애이며 맞닿은 지고지순한 것들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다.

생전에 몇 번 선생을 뵈는 적이 있다. 내 기억은 늘 뿌연 석고가루를 뒤집어쓴 장인의 모습이거나 큰 돌덩이를 안고 나르는 노예의 모습이었다. 미술관 건립을 위해 손수 인부의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오직 작업에 열중하는 선생 곁에 곧바로 다가갈 수 없는 송고함을 느꼈다. 노예는 주인의 부름에 따라 일하므로 행복하진 않다. 하지만 선생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영감(靈感)을 충실히 따르는 노예였기에 누구보다 행복했다.

문신미술관은 서민들의 언덕, 추산공원에 있다. 합포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손수 지은 미술관은 거창하지 않아 좋다. 대규모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집과는 다르다. 선생은 땅을 풀어 부자가 되기보다 미술관을 지어 국가에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바람으로 초석을 다져나갔다.

‘서민과 함께’라는 작가정신은 변함없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당시 마산시의 달동네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미술관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오래 그곳에 산 서민들의 숙원인 고층아파트와 마산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아담하게 지어진 미술관과의 공존은 간단치 않았다. 언론에선 연일 이를 보도했고, 선생은 용인으로 몸을 꺾었다. 그런 사정으로 3년 전 발병한 위병이 악화되어 1995년 5월 24일 새벽, 문신미술관에서 영면에 들었다. 이후 2004년 4월 30일 선생의 유언에 따

라 마산문신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 헌납되었고, 1999년 서울 청과동에서 문을 연 문신미술연구소는 2004년 5월 10일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으로 개관되었다.

방랑은 곧 예술혼이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형태들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의미성을 가지게 되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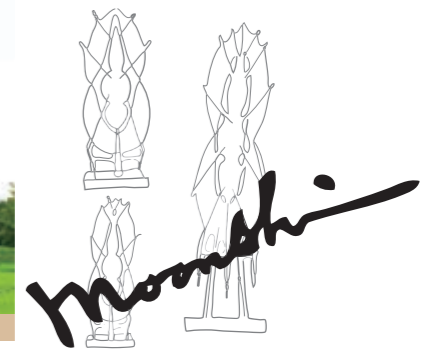
선생은 1922년 1월 6일 일본의 남단 쿠우슈 지방의 북서부에 위치한 사가켄(佐賀縣)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문안신(文安信)이었다. 식민지하 이주한국인의 생활은 힘들었다. 여기서 3살까지 살다가 마산으로 왔고, 일본인인 어머니는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 년 후 다시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다.

어린 시절 마산은 작가를 위한 거대한 캔버스였다. 바닷가에선 모래로 온갖 형상들을 만들었고, 간판집과 영화관을 전전하며 예술가를 향한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어떤 화가들은 극장 간판을 그려 생계를 이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쉬쉬하지만 선생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선생은 마산에서의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어머님과 함께 오동동 소전거리 옆에 살았는데 어머니는 뜨개질을 잘하셔서 뜨개질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긴 여름날이면 어머니는 나와 같이 갈밭앞 바닷가에서 개밭을 까기에 종일을 소일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바닷물을 머금은 모래를 끌어 모아 사람도 만들고 짐도 짓고 조개껍질을 모아 비가 새지 않게 하는 양 엿어보는 등 해는 어느새 서산에 기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6세가 되던 1938년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마음과 화가를 향한 열정을 품고 일본행 밀항선에 오른다. 동경의 일본미술학교 양화과를 다니면서 특유의 근면성으로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간 아버지께 보냈다. 이 돈은 훗날 문신미술관이 설 토대가 된다. 8.15해방으로 귀국하여 마산, 부산, 서울 등지에서 10여 차례 개인전을 갖는다. 구상화에서 추상화로 전향하면서 한국 모더니즘의 도입과 정착에 기여한다.

예술가에게 방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선생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예술혼을 실현시키기엔 일본과 한국에선 한계가 있었



다. 1962년 2월 드디어 프랑스 땅을 밟게 된다. 인간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단돈 50불 밖에 수중에 없었기에 파리의 라브넬 성을 수리하는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작가로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3년간에 걸친 공사는 석공, 미장, 목수 등등 자신이 가졌던 조각적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하긴 14세 때에 자동차운전과 자동차 분해수리를 익힐 만큼 나무, 돌, 금속 등에 대한 남다른 친화력을 보였으니 잠재적 재능의 재발견이었다. 고성 수리와 장식복원 작업은 작업실 마련과 함께 조각가의 입지마련을 위한 호기가 되었다.

■ 우주와 생명의 운율을 시각화 하다

“나는 어떤 것을 표현하려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표현된 것이다. 요컨대 숨겨져 있던 생명이 그런 미로써 나타난 것이다.”

1965년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1967년 프랑스로 간다. 1979년까지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좌우대칭에 의한 동양적 사고관'이란 독특한 입지를 구축하며 세계적 조각가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조국과 고향 마산에 대한 향수는 쌓여만 갔다. 이때부터 그는 한국근대미술 보고의 출발지를 문신미술관으로 꿈꾸게 된다.

조각가 문신은 예술가로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정적으로는 결코 행복한 작가는 아니었다. 첫 부인과의 사별, 두 번째 부인과의 이혼, 다시 세 번째 부인 최성숙과의 결혼을 거치는 동안 감내하기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궁핍과 방랑, 치열한 예술혼으로 점철된 삶의 궤적은 “명상의 신비”라는 문신예술 영감의 프로세스로 작용하게 된다. 처음 프랑스행이 조각가 문신의 입문기라면 두 번째 프랑스행은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절에 해당된다.

1970년 뽀르 바카레스 국제 야외 조각전은 조각가 문신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태양의 사자>라는 13미터의 거대한 목조 토탑을 제작 발표하면서 일약 유럽 화단에 주목받는 작가로 등단한다. 조각가 데뷔작이면서 문신 작품세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세포분열 하듯 증식되는 좌우대칭의 생명은 음과 양으로 대변되는 동양정신의 구현이었다. 이 작품은 훗날 서울올림픽조각공원에 25미터 높이의 스테인리스 조각 <올림픽 1988>로 승화된다.

이후 좌우대칭(symmetry)은 조각가 문신의 상징이 된다. 뿌리와 향토정신을 바탕으로 시공과 지역을 초월하여 동서 모두가 공감하는 예술세계를 이룩하는 것이 문신예술의 요체다. 선생의 시메트리(symmetry)는 컴퍼스 등속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오로지 작화로만 이뤄졌다. 좌우균제 수법 중 어떤 부분의 과격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동식물이 자라면서 뜻하지 않게 균형을 깨뜨리는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연상케 한다.

1971~1972년엔 '아르 콤팩트'개설기념전에 6명의 조각가와 함께 참여하였고, 살롱 '아트 사크레',

현대조각그룹전 등에 참가한다. 1973년엔 목조각 7인전, 국제현대미술교류전 등에 참가한다. 이후 1979년까지 국내외에서 개인전 및 중요 그룹전에 참가하여 세계적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얻는다. 1989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등 동유럽 순회전시를 함으로써 한국인의 예술적 입지와 문화적 위상을 드높인다.

몇 해 전 우연히 프랑스의 로터리회원 10여명이 문신미술관을 다녀간 적이 있다. 이때 흑단작품을 보면서 신기한 듯 딱정벌레를 닮았다고 했다. 실제 그의 작품은 나비나 장수하늘소, 여체와 개미 혹은 낮익은 무엇을 닮았지만 딱히 뭐라 꼬집을 수 없는 어떤 형상을 닮았다. 작가의 심상 속에 내재하는 그 무엇, 즉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형상화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이승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주와 생명의 운율을 시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 사후에 더욱 활발히 조명되는 조각가 문신

영감의 전이(轉移)는 새로운 즐거움이다. 김광섭은 시 '저녁에'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고 노래했다. 그 구절 하나로 김환기는 불멸의 대표작을 창작하였고, 다시 유심초에 의해 대중음악으로 표현되었다.

사후에 선생을 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영감의 전이에 의해 음악으로 문학으로 끊임없이 변주된다. 생활 속에서의 도구로도 재탄생되고 있으며, 문신예술문화산업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2007년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세계적 조각가 문신의 예술과 국가문화산업발전전략>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고, 2008년 10월 28일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는 독일작곡가 안드레아스 케어스팅(Andreas Kersting)의 대규모 관현악곡 'Eleonnthit'이 초연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이미 2007년 독일 바덴바덴 시에서 공식적으로 기획한 문신영상음악제에서 154년 전통의 바덴바덴 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7월, 개관 10주년을 맞은 숙명여대 문신미술관(관장 최성숙)은 '자연과 생명의 빛'이라는 문화행사를 열어 황금찬, 오세영 등 저명 시인들이 문신예술을 노래하는 시인의 밤, 문신예술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문신예술 국가브랜드화 기반구축을 위한 특별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기획으로 마련하였다.

이처럼 문신미술세계는 음악으로 문학으로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다. 선생의 상상력은 작곡가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고 시인에게 시적 영감을 준다. 조각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내재움을 가졌기 때문이다. 질서정연한 기하학적 도형인 동시에 오묘한 환상의 세계 그 자체다.

조각가 문신은 불멸의 작품들과 함께 살아 있다. 🌸

글쓴이 이달균

이달균 시인은 1987년 <지평>을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하였고, 계간 <시와 생명> 편집인, <경남문학>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장릉의 말>, <북행열차를 타고>, <남해행> 등이 있으며,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마산시문학상, 경남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경남신문-이달균 칼럼>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꽃피운 꿈과 열정

2009년 하반기 경남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9월 10일과 16일에 각각 진주와 창원에서 열렸다. 이번 하반기 결연식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 기업 및 예술단체 6개팀이 진주동방호텔에서 결연식을 가진데 이어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경남지역 기업 및 예술단체 10개팀이 창원인터내셔널호텔에서 결연식을 가져 총 16개팀이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행사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주와 창원에서 총 16개팀 결연식 가져

서부경남지역의 메세나에 대한 관심 확산과 지역문화 예술의 고른 발전을 위해 진주에서 개최된 2009년 하반기 결연식 행사에 참가한 기업체 및 예술단체의 대표들은 조금은 흥분된 분위기로 행사장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만 열렸던 결연식이 진주에서 열린 것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며 고무된 분위기였다. 결연식은 주식회사 옥션의 CEO였고 현재 ㈜코글로닷컴의 대표이사인 이금룡 회장의 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메세나인상 제1회 수상자이며 한국메세나협회의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금룡 회장은 강연을 통해 창조경영의 흐름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 다음의 시대를 준비할 때이고 경영자는 예술가의 다른 이름이라고 정의하며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인 경남은행 문동성 행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문동성 행장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 진주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결연식이 열려 감회가 새롭다"며 내빈과 참석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주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기호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려 기쁘다"며 "시민들은 품격 높은 문화 예술의 감동을 얻고 기업은 이미지 향상을 이루는 성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상공회의소 이윤우 회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장

이 열려 진주지역 상공인 대표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활동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경남메세나협회 손갑동 전무의 사업계획 및 현황 발표가 있었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의 결연식이 진행되었다. 결연식에 이어 기념촬영과 축하공연 그리고 만찬의 순서로 이날 결연식은 마무리되었다.

메세나활동이 기업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창원에서 열린 중부경남지역 결연식 행사는 '문화경영 사례와 효과'라는 주제로 ㈜성도GL 김상래 대표이사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중소기업 문화대상을 수상한 ㈜성도GL이 10여 년 동안 펼쳐온 각종 문화 경영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성공담을 진솔하게 발표함으로써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었으며, 문화경영은 윤리적이고 감동적이며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강연을 마무리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어 문동성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가 단순히 지원하고 후원 받는 것이 아닌 서로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며 메세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호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배종대 국장은 축사를 통해 "경남메세나협회가 출범 2년만에 문화 경남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섬으로써 우리 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축하했다. 이어 진행된 사업계획 및 현황발표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손갑동 전무는 2008년 29개 팀이 결연한 것에 비해 올해는 9월 현재 40개 팀이 결연하였고 연말까지 45팀이 결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사업소개가 끝난 후 이날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결연식이 웅장한 배경 음악과 축하의 박수로 시작되었다. 결연 기업과 단체들이 약정서에 교환 서명을 함으로써 10개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이 발표되었고 참석한 내빈들의 축하의 박수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결연식 기념촬영에 이어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었다.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비롯한 익숙한 관악기의 멜로디가 축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이날 참석한 기업 CEO들과 예술단체 대표들은 결연식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석자 모두가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슴에 간직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다.



경남에너지(주)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94년 상장 후 현재까지 창원, 마산, 김해, 진해, 거제, 통영, 밀양 등 총 7개시 3개 군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에너지 회사로의 변신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가정용연료전지 실증사업, 태양광발전 사업 등 정부의 신성장동력원 중점추진 사업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에너지 공급기반과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추구하고며 지난해부터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결연을 계기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근접지원과

경영에도 오케스트라처럼 적절한 긴장과 조화가 필요해

경남에너지(주)는 1972년 '경남연탄'으로 창업한 이후 중서부경남 일원에 걸쳐 서민연료의 공급을 담당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나눔경영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정상급 민간교향악단을 지향하며 열정적인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2004년 출범하여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예술단체이다. 2005년 5월 모짜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오케스트라를 맡아 4개 도시 13회 공연을 통해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로 인정을 받았고, 2006년 3월에는 '희망의 소리 찾기 운동본부'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매년 6월과 12월에 있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더욱 성숙된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경남자동차판매(주)
-경남첼버쏘사이어티

차 량 구매툴인 Car Configurator와 Compare Models를 통해 원하는 모델을 비교하고 메르세데스-벤츠의 Class별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할부제도, 유예금융제도, 리스 등의 다양한 재무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차량 구매금액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차량 보유자를 위해서는 출고 3년 내의 차량에 대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최고의 자동차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율을 찾아

경남자동차판매(주)는 마산시 신포동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경남 공식 딜러사로 경남 전역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판매, 수리 및 부품판매 등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스의 경우 출장비를 무료로 하거나 메르세데스-벤츠의 순정부품을 24개월 동안 보증해주는 제도 등을 운영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년전부터 경남첼버쏘사이어티와의 결연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차원높은 고객서비스를 실현해 오고 있다.

경남첼버쏘사이어티는 경남지역 실내음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년에 역량 있는 기성 연주자들이 모여 조직된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이다. 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및 창작음악회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 교육을 위한 여름 음악학교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수준 높은 실내음악의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국제전기
-극단 장자번덕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다는 생각은 전기와 예술혼에서 똑같이 느껴져

(주)국제전기는 2002년 설립된 배전공사 전문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점의 배전공사 전문시공을 담당하는 한전의 우수 협력업체로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주)국제전기의 황정봉 대표이사는 연극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연극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어 창업 이후 줄곧 지역 연극단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천시 소재 극단 장자번덕과의 매칭펀드 결연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메세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극단 장자번덕은 1998년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천지역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단체이다. 다양한 창작 활동 및 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제 27회 경남연극제에서는 단체금상, 연기대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명제한의원
-극단 마루

이 동준 원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수 년 전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공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이 경남 메세나협의회와의 인연을 통해 매칭펀드 결연으로 이어져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더욱 활발한 문화 교류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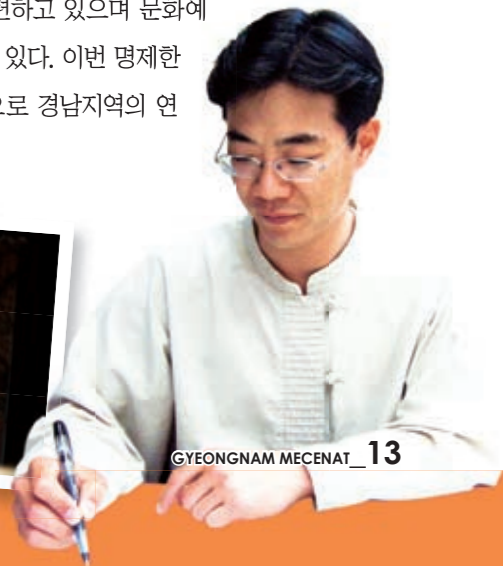
극단 마루는 2005년에 창단된 연극단체

배우들의 완벽한 조화는 인체의 조화와 견줄만 해

명제한의원은 1999년 밀양 내이동에 개원하여 체계적인 병원 운영을 지속해오며 지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 한의원이다.

로 밀양을 비롯한 경남 전역 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특히 지역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공연 관람기회 제공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보다 다양한 계층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질 높은 창작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명제한의원과의 결연을 통해 보다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경남지역의 연극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미래산업
-창원큰들

첨단과 전통의 조화만큼 강한 것은 없어

(주)미래산업은 1996년 창업 이래 휴대폰 CASE 및 소형부품 도장, 금형, 성형 분야에 이르기 까지 기술 개발 및 자동화를 통해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망 중견기업이다.

창원 팔용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미래산업은 노키아, 삼성, LG, SK 등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에 필요한 외관 도장 및 데코레이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헝가리에 도장라인을 완공하였고 2006년 상반기에는 금속 도장 라인을 구축하였으며, NOKIA Supreme Supplier Award 수상과 팔용동 본사 신축과 동시에 제4세대 도장 라인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에 배려도 소홀하지 않다. 전통문화예술단체인 창원큰들과의 결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그 한부분이기도 하다.

창원큰들은 민족문화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재창조하고 건강한 지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당극, 풍물놀이 등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연구 및 보급활동, 노래공연 등의 활동을 하는 종합문화예술단체이다. 6명의 상근단원과 15명의 풍물단원 그리고 19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진주의 큰들문화예술센터와 공동으로 1~2편의 마당극을 창작하여 연 100회 이상의 전국 공연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연극제, 춘천국제연극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전국 규모의 다양한 지역축제에 초청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산골농장
-산청민속보존회

선조들이 물려 준 천혜의 자원이 바로 최고의 예술 작품

산골농장은 산청군 신안면 소재 지리산 해발 250미터 산자락에 위치한 10만여 평 규모에 약 45만여수의 산란계를 보유한 친환경 양계농장이다.

지역출신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서부경남지역 문화예술지원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내 메세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청민속보존회는 1996년에 창단하여 지역내 다양한 봉사활동과 각종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 전파 및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농촌두레풍물단체이다. 경남민속예술축제에서 수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2006년에는 전국대회에 경남대표로 출전하여 한국문예총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1회 일본국민문화제 야마구치2006 행사에 초청받아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우수문화예술단체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9년에는 양계농가로서는 전국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제3호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았으며, 첨단 설비 및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통해 양계농장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양계장 주변에 조성된 100여종 4만여 그루의 장미공원에서 장미축제를 열어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산골농장을 찾는 등 환경친화적 농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상호 대표는



삼원테크(주)
-난리굿패어처구니

뜨거운 현장에서 펼쳐지는 풍물 한마당의 카타르시스

삼원테크(주)는 창원시 성주동에 위치한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철재 및 스테인리스재 관음쇠 등 산업용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우수 중견기업이다.

2006년에 무역의날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World Class Company에 선정되었다. 2009년에는 중국, 유럽에 이어 미국에 Samwon USA를 설립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매출처로는 볼보코리아, 현대, 두산 등이 있으며 V2라는 신기술 제품을 특허 등록하는 등 새로운 기술창조와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본사 자동화 공장을 통해 소량 및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택우 대표이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기업문화에 접목, 상생의 조화를 꾀하고자 지역 메세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난리굿패어처구니는 우리민족의 전통연희(탈춤, 풍물 등)와 현대연극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예술장르와 조화롭게 소통되는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2005년 창립된 예술단체이다. 창원오광대 복원, 마당극 창작 및 공연 등과 같은 예술 활동 이외에도 재래 시장 기 살리기, 지신밟기,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마당 등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전통 예술 체험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 보존 활동을 펼치며 전통문화 보급 및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한 예술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주)
-통영관악합주단

황포돛의 거침없는 항해 뒤 음율 한가락이 느껴지는 곳

성동조선해양(주)는 2003년 돛을 올린지 4년 만에 수주잔량 기준 세계 5위에 오른 통영에 위치한 세계 10위권의 조선회사이다.

진수 전까지의 모든 공정을 육상에서 진행한 뒤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GTS공법(Gripper-Jacks Trans-lift System)'을 세계 최초로 개발, 육상 건조 선박 중 세계 최대 규모 선박 진수 및 세계 최초 육상 건조 컨테이너선 진수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주)는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사랑의 줌どり 운동', '푸드마켓' 사업, '어려운 계층 돕기' 사업 등 사회 환원 활

동과 '게릴라 콘서트', '이원국 발레단 초청공연' 등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통영관악합주단은 예향 통영의 대표적인 연주단체로 매년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란 부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공연관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 2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통영시내 뿐 아니라 외곽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연주여행 '학교에서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의 중요성과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주)신택

- 동락문화예술연구회
- 경남피아노듀오협회

기업의 에너지는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것

(주)신택은 2001년에 발전설비 사업을 시작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 분야 선두기업으로의 성장동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유망 코스닥 등록기업이다.

창원시 옹호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신택은 서울, 동경사무소와 철서 제1,2 공장을 운영 중이고 해양, 원자력 설비 사업과 관련하여 전남 광양과 신안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자 Power Plant Engineering 및 서비스의 벤처화를 선언하고 CTR(Cycle Time Reduction)과 CO(Cost Optimization)를 통해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여 년간의 폭넓은 경험과 Know-How, Know-Why를 지닌 각 분야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함께 하여 개발한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적용과 검증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신택의 5가지 경영이념인 인간존중 경영, 가치창조 경영, 고객최우선 경영, 기본중시 경영,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은 조용수 대표이사의 경영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이다.

조용수 대표이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흥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칭 민족주의자이다. 신택의 창업이 없었다면 대부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등에 빼앗겼을 공사들의 수주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국부를 확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이를 다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경남메세나협회의를 통한 결연으로 조금이나마 그러한 숙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능하면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싶은 욕심에 동락문화예술연구회와 경남피아노듀오협회 두 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좀 더 체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는 창원을 중심으로 도내 각 지역에서 미술(조각, 공예, 서예, 서양화, 동양화 등)을 전공한 작가들이 창작활동과 병행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남피아노듀오협회는 1999년에 창단하여 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석사학위 이상의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이다. 매년 2차례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국제교류음악회, 초청음악회, 협주곡의 밤 등 피아노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앙상블 연주를 통해 지역의 피아노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시영건설(주)

- 경상도소리보존회

고객만족과 감동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항상 최상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통해 기업 신뢰를 제고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지역공헌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경상도소리보존회는 경상도 민요의 계승, 발전 및 국내외 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전통예술의 공연 등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진흥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통예술단체이다. 2002년 제1회 '우리소리'

건설공사의 정교함이 우리 가락의 그것과 같아

시영건설(주)는 2002년에 설립되어 관공사(군부대, 학교 등)와 민간 상업시설 공사를 두루 수주하며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회사이다.

한마당' 국악발표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위문공연, 해외공연 등을 통해 국내외 전통예술 교류 및 저변확대, 지역민에 대한 전통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산죽염촌(주)

-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히 한국 토종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 바이오 식품을 개발하고, 차세대 토종 동식물 합성품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죽염발명가 인산 김일훈 선생이 남긴 저술들을 연구, 발간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9월이면 천년기념물 제 154호인 천년의 숲 함양 상림의 야외 특설 무대에서 '인산국제가곡제'를 개최하여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음악 애호가들까지 참석하는 가을밤의 감미로

죽염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정성을 다할 것

인산죽염촌(주)는 죽염 발명가인 인산 김일훈 선생이 발명한 죽염 및 사리장을 비롯하여 인산이 여러 저술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을 상품화하여 보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윤 가곡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지역민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등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김해YWCA, 김해시, 가야방송과 연계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김해지역 단일 오케스트라로는 최대 규모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예술 단체이다. 지역 내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제공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주)장생도라지
-이상근기념사업회



창업주이자 현 이영춘 대표이사의 부친인 이성호씨에 의해 개발된 21년산 장생도라지는 평균 수명 3년인 일반 도라지에 비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

21년의 정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경지를 음악에서도 느껴

(주)장생도라지는 특허작물인 장생도라지를 재배·연구하고 이를 기능성 제품으로 생산 및 수출하고 있는 INNO-BIZ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유되어 있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작물이다. 지리산에 위치한 17만평의 도라지밭에는 250개 지역 농가가 참여하여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의 정기적인 관광으로 인해 문화관광상품으로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라지에 대한 정성 못지않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강한 이영춘 대표이사는 이상근기념사업회의 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아온 터라 금번 재결연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이상근기념사업회는 2005년 진주사랑 한국작곡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단체로 20세기 한국 현대음악을 개척한 고 이상근 선생의 음악세계를 선양하고 한국음악의 발전 및 이상근 음악제 개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 9월 (사)이상근기념사업회로 재창립하고 '2008 이상근음악제'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한국의 음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주용테크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

선박건조를 하는 무뚝뚝한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류선재 대표는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와 결연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는 1993년 설립된 거제지역 내 유일한 연극단체이다. 2회에 걸쳐 '경남연극제'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국연극제'를 주최하여 역대 전국연극제 중 최다 관객 참여라는

선박건조의 땀방울만큼 달콤한 예술향기 찾아

주용테크는 2008년 거제 대우조선해양(주)내 선박조립 협력사로 창업하였으며 선박 곡블록조립/취부, 용접, 사상 등의 공정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섬, 코메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외 4개국 5개팀, 국내 6개팀이 참가한 '거제 세계희극축제'를 개최하여 경남 연극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2009년 4월에 개최된 '경남연극제'에서는 대상, 연출상,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단체이다.



중앙금속(주)
-한국문자문명연구회



금속으로 만들어낸 활자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앙금속(주)는 1994년에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스코특수강(주), 한국철강(주)의 대리점으로 국내 유수의 중공업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Turbine, Blade, Bolt&nut소재 등을 국산화하여 공급하고 있다.

2007년에는 무역의날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09년에는 제43회 납세의 날에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영건 대표이사는 평소 직원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해마다 직원들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문자문명연구회는 인간이 만든 문자를 통해 기록된 역사와 문화를 문명사적으로 아우르면서 현대문명과 그 예술을 문자기호학 혹은 문자미학의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연구하고자 설립되었다. 경남지역의 미술, 서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008년 총 5회의 관련 학술워크숍과 2회의 세미나를 통해 문자문명연구의 토대를 마련했고, 2009년 9월에는 문자문명전 (한국현대사경전, 창원문자사료전, 경남의 현대문자예술 20인전, 현대조형문자전)을 개최하였다.



(주)화영
-김금희무용단

2000년 8월에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05년 7월 제9회 경남중소기업대상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중소기업 유공자부문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2008년 12월에는 벤처기업대상 철탐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중견 우량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경영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흥원 대표이사는 평소 창조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김금희무용

완성된 엔진의 힘찬 맥박에서 느끼는 최고의 몸짓

(주)화영은 대형선박 엔진부품 전문제조업체로 현대와 두산 등 국내 주요 선박엔진 Maker와 일본, 중국 및 유럽의 우수 선박엔진 Maker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단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감성경영을 펼쳐갈 계획이다. 김금희무용단은 1990년 밀양 출신의 무용인들로 창단된 전문 무용단체이다. 전국 각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뛰어난 기량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밀양지역의 각종 문화공연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자매도시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경남무용제' 최우수상 및 안무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 경남무용제 대상 및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전국무용제'에 경남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창원이 피렌체와 같은 문화도시가 되기를 꿈꾸며

서울이비인후과병원(창원 상남동)의 정태기 원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 간 그의 진료실에는 '반 고흐'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누구든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로비에 진열된 책과 그림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이미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면 '반 고흐', '샤갈', '피카소' 등으로 이름 지어진 진료실 앞에 다다르면 이미 문화예술의 한 끝에서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대학 다닐 때 오케스트라를 한 죄로 맡게 되었죠. 하하.. 음악 교사 한 분이 사비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일이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고 뜻을 같이하여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해 사단법인화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사장직을 어떻게 맡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예의 그 겸손하고 소탈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창원 최대 규모의 이비인후과병원 원장으로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 대안공간 마루 지원 그리고 와인문화원과 와인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해 2008년 경남메세나상 창의상을 받은 정태기 원장은 함께 자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문화의 향기를 풍긴다. 병원 로비는 물론 병실과 주차장 그리고 옥상에 이르기까지 건물 전체가 문화예술의 장이라고 할 만한 이곳도 바로 정태기 원장의 아이디어로 탄생되었다.

“눈길이 가는 데는 그림이, 손길이 가는 데는 책이, 귀가 열린 데는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이미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를 부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병원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책을 들고 그림을 보게 된다.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

그가 이사장직을 맡고 나서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연 2회의 정기연주회와 1회의 자선 음악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제는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오디션 받기를 기다리는 1순위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단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2007년부터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몇 안되는 오케스트라로서 이제는 공연을 유료화 시켜가고 있다. 처음에는 모두들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그런 변화가 바로 경남 지역의 문화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돈을 지불하고 참가하는 관객이나 돈을 받고 연주하는 단원들은 그런 분위기를 통해 책임감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활이 곧 문화라고 주장하는 그는 2008년부터 와인문화원을 만들고 와인 아카데미를 열어 와인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던 와인아카데미가 벌써 20기 동안 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기업 CEO에서 변호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다

양한 연령층과의 교류도 새로운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폭탄주로 대변되는 우리 술 문화가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인 와인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필수조건은 바로 문화

“고향이 진주이지만 창원에 대학병원이 없어 대학병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면 서울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방을 스스로 2류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교육, 의료,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문화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면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필수적으로 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보급해야겠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책 선물을 많이 합니다. 조만간 지역에 독서토론회를 만들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림, 문학, 연극, 음악 등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지역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를 앞에서 향유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는 이제 창원이 피렌체와 같은 문화도시가 되기를 꿈꾼다. 창원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 되면서 깊이 있는 문화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 안타까워하지만 문화와 경제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안이 가능한 공간인 창원에서 반드시 문화활동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탱글우드(Tanglewood)에서 열린 숲속 공연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야외 공연으로 잔디밭에 텐트도 치고 와인도 마시면서 연인끼리 가족끼리 연주를 듣는 분위기였는데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훨씬 더 아름다워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장소가 있어 연주회도 하고 여름캠프도 만들고 그림 전시회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터뷰 내내 문화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직도 세상에 펼쳐지지만 기다리는 수 많은 아이디어의 단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섬진강을 따라가는 문화예술 기행

하동河東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9월 13일 10개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32명을 대상으로 섬진강 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경남 하동의 문화예술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도요지를 시작으로 북천면 이병주 문학관, 북천 코스모스단지,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까지 이어지는 예술기행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을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웠지만 하늘은 더없이 맑고 공기 또한 상쾌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조금은 낯설어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문화예술 기행의 동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내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한사람 한사람 버스의 빈자리를 차례로 채우자 어느새 차 안은 문화예술에 대한 경쾌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도심의 빌딩 숲들이 하나 둘 차창 뒤로 사라져가고 어느새 버스는 하동 입구에 도착하고 있었다. 하동. 여유와 행복을 품은 섬진강 동편 마을. 지리산과 섬진강을 동시에 안고 있는 곳. 3면이 지리산 산줄기와 준령으로 둘러 싸인 곳. 거기에 하동의 젖줄인 섬진강은 그 도도한 자태를 드러낸다. 전북 진안군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500여리를 흐르다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 사이의 하구에서 남해 바다로 합류하는 느리게 흐르는 강. 다사장이라 불릴 만큼 고운 모래가 많은 백사장이 유난히 많은 강. 그런 자연을 간직한 하동이 우리들 가까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시야 가득 펼쳐지는 산과 들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버스안에서의 노곤함쯤은 한 방에 날려버리게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모두들 백련리 도요지 가는 길목에 준비된 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점심메뉴는 백련리의 자랑인 연잎밥이다. 잘 준비된 연잎과 함께 찹쌀과 팥, 밤, 콩, 잣, 은행, 대추 등을 넣고 푹 찌고 나면 입안 가득 퍼지는 연잎향이 오래도록 기억에 새겨지는 연잎밥이 된다. 거기에 육질이 부드러운 돼지고기 수육이 어우러져 점심시간은 더없이 즐거웠다. 연잎밥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먹던 음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다스려 주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연잎밥의 추억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연잎의 향기가 좋은지 아이들도 잘 먹었구요 든든한 웰빙 식사였습니다” 예은이 연우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연잎밥을 먹던 ㈜삼보산업의 서정호 실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지 연잎밥 칭찬이 대단했다.

백련리 도요지에서의 도자기 체험

식사가 끝난 후 오늘의 첫 번째 체험지인 도요지에 도착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몇년전 영화 취화선의 촬영장소이기도 해서 더 유명해진 백련리 새미골 도요지이다. 하동군 진교에서 국도를 따라 하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특히 흙(고령토)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적합하여 삼국시대에는 가야의 찬란한 토기문화를 꽃피웠던 도요지였고, 고려시대는 고려청자를, 조선시대는 진주목 관하에 백자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이곳의 도공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 간 조선의 막사발은 놀랍게도 일본 상류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일본은 이것을 국보로 지정한 후 ‘이도자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그 후로 정작 조선팔도에서는 막사발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새미골가마를 재건한 장금정씨는 끊어져버린 조선 도자기 500여 년의 숨결을 다시 잇고자 30여 년의 노력을 기울여 500년 전의 너구리 가마를 그대로 재현하고 결국 막사발을 만들어 냈으며 지방문화재 24호로 지정을 받았다.

“흙덩이를 1cm정도 실로 잘라서 잘 두들겨 퍼주고 떡국 가래 모양으로 밀어주시면 되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양쪽을 손으로 꼭 눌러 붙여 주시구요.” 30명의 진지한 눈빛들을 앞에 두고 장금정씨는 정성스럽게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막사발 재현을 위해 바친 30년의 애환이 담긴 그녀의 손은 가늘지만 강해 보였다. “도자기 흙은 오늘 처음 만져보는데 말랑말랑하고 차가워요. 사발을 만들거예요” 삼원테크㈜ 박종서 부장의 큰딸 소진이가 야무지게 흙을 두들기며 말했다. “도

자기 체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신중했어요.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생각대로 잘 만들어지진 않지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도자기 체험에 기대를 하고 참가한 ㈜센트랄 이정은사원의 각오는 대단했다. “동료 직원들과 같이 하니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릴 때 하던 찰흙놀이가 생각나네요” ㈜연신화공 김민수 사원은 함께 온 동료들과 솜씨를 겨루며 재미있어했다. “처음 시도했는데 잘 안됐고 있습니다. 하하. 메세나 덕분에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해줄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림페이퍼㈜ 김준환 반장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모두들 한시간 정도 정성들여 만든 자신의 작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한 후 아쉬움을 뒤로 하며 다음 행선지인 이병주문학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버스 안에서 오늘의 도우미를 자청한 진남숙 문화해설사로부터 새미골의 역사를 들으며 모두들 일본에 빼앗긴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소중함을 가슴 한 켠에 새겨 둘 수 있었다.

'지리산'의 작가 이병주를 만나

버스는 잠시 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이명골길에 위치한 이병주문학관에 도착했다. 약 950평의 대지에 세워진 2층 건물은 중앙 현관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전시실과 강당 그리고 창작실을 갖추고 있었다. 넓은 마당에는 연못과 정자, 놀이터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문학체험의 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전시실은 좌측에 있었는데 작가의 일생을 연대기 순서로 소개한 전시물을 통해 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다양하게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작가 이병주는 1921년 3월 하동군 북천면 남포마을에서 출생하였다. 1965년 마흔 네 살의 나이에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세대)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고 '낙엽'으로 한국문학작가상을, '망명의 늪'으로 한국창작문학상을, '비창'으로 한국





화생태탐방로로 알려진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길'로 설레이는 발걸음을 옮겼다. 평사리 공원에서 시작해서 평사리 들판을 지나 최참판댁으로 걸어 올라가는 코스였다. 오르막 길을 한 참 올라 최참판댁에 도착하자 평사리문학관 최영욱 관장의 최참판댁 안내가 막 시작되었다. 어느덧 돌아 가신지 1년이 훌쩍 지난 박경리선생은 KBS에서 1985년 광복40주년 기념으로 드라마 '토지'를 제작하고자 할 때 지리산 산천의 아름다움을 많이 담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했다고 한다. 결국 드라마로 인해 이곳 평사리는 전국민이 찾아드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소설의 중요한 장소인 최참판댁은 평사리에 없었다. 지금의 최참판댁은 1998



여행과 배움이 함께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에드테크 박기용 대표이사는 최참판댁 체험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보였다.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문화예술 체험은 그렇게 하루 해와 함께 저물어 갔다. 저녁식사는 하동의 별미 참깨가리장 정식으로 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지칠 법도 한 몸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생기가 돌았다. “즐거웠습니다.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곤 했는데 문화해설사가 직접 설명해주시 전에 봤던 것들도 오늘은

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 밖에도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 ‘소설남로당’, ‘그 해 5월’ 등 8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며 한국 소설계에 이름을 알렸다. 사람들은 흔히 이병주를 실록소설의 창시자라고 불렀다. 서재를 가득 메운 25,000권의 책 귀퉁이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던 다양한 장르의 독서가이기도 한 이병주가 한국 문학계에 남긴 문학적 영향은 컸다. 우리 근대사의 어두운 곳을 용기 있게 다룬 그의 작품에 대해 문단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뼈대에 작가적 상상이라는 살을 붙이는 이병주식 문학’이라고 평가했고 ‘사실과 상상 그 사이를 자유로이 거닐며 하나로 결합시킨 역사의 기록자’라고 정의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지리산’은 일제 강점기인 1938년부터 휴전후인 1958년까지 30여 년간의 한국 현대사를 기록한 실록소설이다. “백두대간의 굳센 등뼈가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뻗어내는, 그러다 호남과 영남의 지평을 거머쥐고 우뚝 일어난 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리산이다. 그 아름다운 능선과 계곡도 피로 얼룩졌던 시절이 있었다. 1972년, 금기시 되었던 지리산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다.” 소설 ‘지리산’을 소개하는 글에서 장엄함이 느껴졌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소설가 한 사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살아가며 겪었던 일생을 소설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병주 소설을 더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장소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의 배경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박영근 과장이 서로의 마음을 대변하듯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노영동 과장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후대에도 지역 문화의 우수성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가을 향기 가득한 북천 메밀꽃·코스모스축제

이병주 문학관을 뒤로 하며 다음 코스로 이동한 곳은 ‘북천 메밀꽃 코스모스축제’가 열리고 있는 메밀꽃 코스모스 단지였다. 붉게 물들은 코스모스들이 어찌나 많은지 눈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코스모스 천지를 이루고 있었다. 하늘과 산과 물과 코스모스를 동시에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곳, 메밀음식과 비빔밥이 있고 작두콩, 수세미, 호박 등이 주렁 주렁 달린 조롱박터널에 시화전이 열리는 이곳은 사진가들을 유혹할 만 했다. 모두들 코스모스의 향기와 카메라에 담기는 황홀한 경치에 취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에 부랴부랴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길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최참판댁으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드넓은 평사리 들판과 섬진강 물길에 한눈에 들어오는 상평마을 언덕배기 최참판댁.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



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사랑채를 중심으로 축조되기 시작했다. 소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최영욱 관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최참판댁은 어느새 토지의 주인공들이 살아 숨쉬는 현실세계로 변해버렸다. 최치수가 죽자 할머니의 먼 친척인 조준구가 차지하는 사랑채, 조준구가 흥씨부인과 최참판댁 마지막 핏줄인 서희를 몰아내기 위해 계락을 꾸미는 뒷채, 조준구의 처 흥씨부인과 서희가 주권을 다투는 안채, 최서희의 엄마가 기거하는 별당, 최치수가 은둔했던 공간이자 귀녀와 평산의 계략으로 교살된 곳 초당이 주인공들과 함께 복적대는 것만 같았다.

“토지는 어려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해설과 곁들여 최참판댁을 둘러 보니 감회가 다르네요. 토지길은 콘크리트길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가족들과 함께 가 볼만한 곳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몽땅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최참판댁에서 옛날집을 본 것이 기억에 남아요. 칼싸움도 재미있었어요.”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즐거워하는 준석이와 함께 하루를 보낸 (주)삼진 오세창 팀장에게 오늘 하루는 남달랐던 것 같았다. 삼원테크(주) 박종서 부장도 “가족들과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도예체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최참판댁에도 여러번 가보았었는데 해설을 들으니 느낌이 많이 달랐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라며 뜻 깊은 예술기행이었다고 평가했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모두들 의자 깊숙히 몸을 기대고 하동에서 보낸 하루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 한 가득 담아가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문화예술의 향기 덕분에 하동에 대한 고마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들이었을 것이다. 🍃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STX조선해양(주) 통기타 동아리 '통소리'>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사이로 올려 퍼지는 오현(五絃)의 향수

진해시 원포동에 자리잡은 STX조선해양(주) 골리앗 크레인 이 우뚝 선 대규모 작업장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점심시간에 공장동 3층 연습실에서 올려 퍼지는 포크기타의 선율이 오전에 쌓인 작업장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STX 조선해양(주) 통기타 동아리인 '통소리'의 김부석 총무의 연주 곡이 채 1m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5개의 기타줄을 통해 흘러 나오는 장면은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는 사람들의 기타 연주라서인지 어울리는 듯 아닌 듯 독특하다.

'통소리'는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곳이다. 회원들은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부서만큼이나 다양한 실력의 연주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이제 코드 몇 개를 갖 배워 반주를 하기 시작한 회원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뜨고 있는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하는 실력과 뮤지션도 있다. 요즘 신입단원 중 윤인만 기사와 김용섭 반장 그리고 김재성 기사의 활약은 대단하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기타를 잡아보지도 못했던 이들이 서명찬, 이수근 두 명의 고문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후 연습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다진 솜씨는 이제 두 고문의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 배를 만드는 열정으로 임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이 이들

의 주장이다.

'통소리'의 힘의 원천은 단연 두 고문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명찬 고문은 30년 가까이 통기타를 연주해 온 실력파이고 이수근 고문은 중학생 시절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한 베테랑이다. 두 사람은 한결같이 "회원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이 느는 모습을 보면 당사자들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통소리'를 이끌고 있는 한춘수 회장은 "이제는 경남메세나협회의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강사료, 예술동아리 공연비, 예술관련 봉사활동비 지원 등 연 1회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제법 규모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기쁨을 표현했다.

앞으로도 2달에 1번은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사원들의 결혼식을 찾아가 축하 연주를 하거나 노인정을 찾아 위문공연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경남메세나와 함께하는 예술동아리로서 앞으로 '통소리'의 꾸준한 발전이 기대된다.

미술작품 대여사업 <(주)포스텍>

사무실과 현장에서 감상하는 미술작품 갤러리

진해시 행암동에 위치한 (주)포스텍 사무실에서는 9월 29일부터 사내에 전시하기 시작한 미술작품들에 대한 작품설명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지역 대표작가의 미술작품들 때문인지 사무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한껏 뿜어내고 있었다. (주)포스텍의 최기석 대표이사는 CEO이자 수필가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남메세나협회가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론칭한 '미술작품 대여사업'을 알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기석 대표이사는 도내 작가의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임대하여 전시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경남의 미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메세나협회에 신청을 했고 최종 승인을 얻어 이 작품들을 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포스텍이 대여받게 된 작품은 김다순 작가의 유화 '내면여행', 박경윤 작가의 '살아있다는 것은...', 정영주 작가의 '그 곳에 가고싶다' 그리고 최대식 작가의 '길' 등 총 네 작품이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4월 지역 미술작가들로부터 '미술작품 대여사업'에 참여할 작품들을 모집했었다. 참가 자격은 경남 지역 작가가거나 경남 출신 작가로서 10년 이상의 작품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남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 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경력 수준이면서 개인전 3회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작가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엄선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네 작품을 결정할 때도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다. 이번에 대여받은 작품은 2010년 9월까지 1년간 대여하기로 했으며 6개월 단위로 다른 작품으로 교체도 가능하다는 약속도 받아 놓았다.

대여금액도 네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의 약 10%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경남메세나협회의회에서 기업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여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포스텍에서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운송비와 설치비 그리고 작품보험료 등이 전부였다. 대여료 또한 작품가에 대해 월 1%에서 1.5%밖에 되지 않았다.

(주)포스텍 직원들은 이제 복도를 걷다가, 회의를 하다가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미술작품으로 인해 잠시나마 마음의 정화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





클래식 음률을 타고 재미와 상상의 세계로

지난 8월 8일 꿈과 환상의 섬 거제도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즐거움 나눔티켓’ 행사를 통해 애광원 원생 100여명을 비롯한 거제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들려주는 ‘아기코끼리 바바이이야기’가 공연되었다. 돛대배 형상을 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해 바다는 마치 예술회관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가까워 보였고 아이들의 말장난도 파도소리에 실려 재잘거렸다. ‘아기코끼리 바바이이야기’는 클래식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일상의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독특한 컨셉의 콘서트이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듯이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고 음악을 듣는 방법과 재미를 알려주어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이끌었다.

“클래식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 쇼팽의 강아지 왈츠와 즉흥 환상곡,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등 명곡들의 몇 소절씩을 짧게 연주하고 음악의 느낌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아이들을 조금씩 클래식 음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2부에서는 프랑스 동화 작가 장 드 브로노프(Jean de Brunhoff)의 동화 <아기코끼리 바바>에 빨랑(Poulenc)이 곡을 붙인 <아기코끼리 바바이이야기>를 백혜선이 피아노와 동화 구연을 통해 들려주었다. 구연동화와 그림 그리고 백혜선의 연주가 곁들여진 2부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가득 심어준 무대였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1994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3위에 입상, 한국 국적을 가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최초의 입상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다. 서울대 사상 최연소 교수이자 2002년에는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선정되는 등 수 많은 화제를 낳았던 그녀는 이제 엄마가 되어 아이들 앞에 서서 클래식을 재미있는 음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애광원 진원진 선생님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담긴 감정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공연을 보고는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재미있어 했어요”라고 공연의 독특한 매력에 즐거워했다. 장재식 원생은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니까 음악이 더 즐거웠어요. 또 보고 싶어요”라며 선생님을 즐겼다. 엄마 같은 백혜선의 이번 공연은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어린이들에게 가깝게 만들어 공연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준 좋은 기회였다.



지난 9월 19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세종고등학교 강당에서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찾아가는 메세나’ 행사인 극단 미소의 ‘뒤집기 흥부전’이 공연되어 학생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가득했다. 경남은행과 함께 청소년 금융캠프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연에 앞서 경남은행에서 준비한 금융교실도 함께 열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밀양에 위치한 세종고등학교는 경남의 대표적인 모범 자율학교다.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무학년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도입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좋아지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다. 그러다 보니 2004년 이후 6년 연속 서울대에 합격하는 선배들이 배출되고 있고, 포항공대, 울산 과기대 등에도 꾸준히 진학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기도 높다. 이번 공연도 경남메세나협회와 학교측의 뜻이 맞아 떨어져 성사되었다고 한다. 극단 미소의 창작극인 ‘뒤집기 흥부전’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흥부전의 주인공인 흥부와 놀부의 선악 대립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풍자한 마당극이다. 극단 미소의 천영훈 대표는 “웃음과 재미에 대한 열린 사고로 관객과 교감을 통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순발력 있는 애드리브를 통해 놀이판 벌이기를 시도해 윤리관이 변질되고 물질 만능의 심화, 인간성 타락, 비리가 팽배해진 현실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패배하는 놀부를 통해 우리네 삶이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는 마당극”이라고 소개했다.

“배우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공연을 관람한 400여 명의 학생들은 배우들과 함께 마당극에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배우들과 주고 받는 대화가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했지만 좀처럼 접하기 힘든 재미와 웃음을 맛볼 수 있었다. 체험의 즐거움 속에서 흥부와 놀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는 새로운 시각과 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학생들을 인솔한 김기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극을 통한 경제 교육이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연극이라서 좋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며 즐거운 아쉬움을 남겼다. 공연을 관람한 박은진(1학년) 학생은 “배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놀부가 체제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것 같아요.”라며 즐거워 했다. 신진수(2학년) 학생은 “연극을 처음 봤어요. 흥부와 놀부가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연기자들이 재미있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학생들에게 좀처럼 접하기 쉽지 않은 이번 체험으로 인해 흥부전에 대한 또다른 시각을 가져보게 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

웃음과 교훈이 함께하는 풍자 한마당





타협이라는 단어를 버린 경남음악협회 변화의 전도사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경남 마산시 평화동은 간간이 들려오는 새들의 합창이 고요함의 씩표를 채울 정도로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고풍스럽고 깔끔하게 지어진 주택들이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이웃하고 있는 모습이 평화동이라는 이름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만들었다. 이미 전화 연락을 받고 반갑게 마중을 나온 최전희 회장의 첫인상은 강인해 보이는 표정과 대조적으로 매우 소탈한 느낌이었다.

경남음악협회는 경상남도 10개 시 10개 군에 총 15개 지부 2,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명실공히 경남을 대표하는 음악협회이다. 최전희 회장은 2007년 2월부터 경남음악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괄목할만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미 언론을 통해 주목 받고 있는 경남음악협회 변화의 전도사이다.

10년 후의 경남은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

“무대예술에서 전시를 제외한 공연 예술의 70%를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극히 낮았던 거죠. 연극이나 무용, 전시 같은 부문은 그래도 나왔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나서 당장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죠.”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어조로 경남음악협회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경상남도 음악제’와 ‘경남의 노래’ 두 행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경상남도 음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음악인들의 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가을에 열렸던 ‘경상남도음악제’는 ‘경남도민을 위한 경남음악인들의 축제’라는 컨셉으로 경남 출신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이경선 교수를 비롯하여 창원, 밀양, 마산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등 지역 내 촉망 받는 젊은 연주가들을 참여시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음악상’도 제정하여 지역 음악 발전에 공헌한 뛰어난 음악가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남의 노래’는 봄에 열리는 음악과 문학의 만남의 장이다 경남문인협회가 주관하고 경남음악협회가 주최하여 경남의 시인들이 경남을 노래한 시를 경남의 작곡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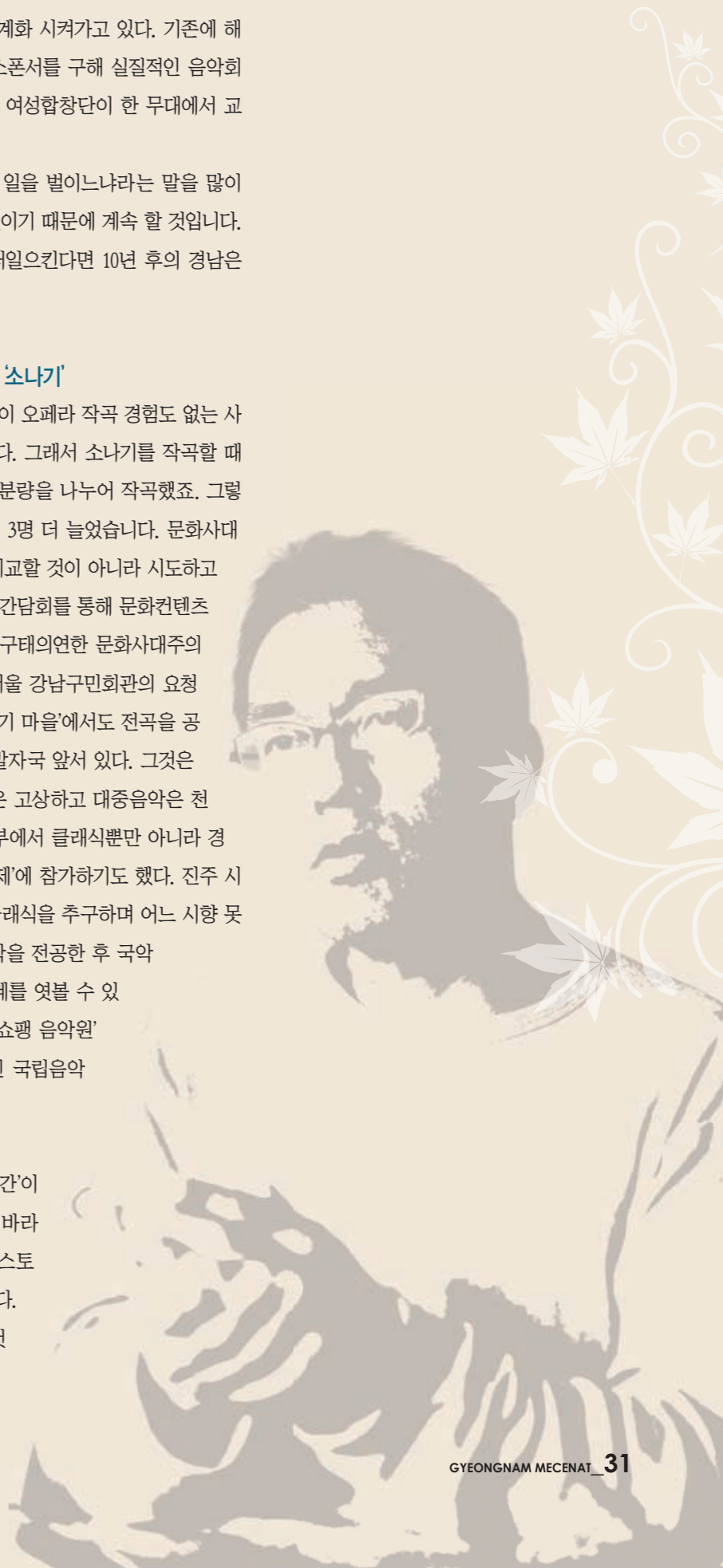
이 작곡하고 연주함으로써 연주와 창작을 고르게 체계화 시켜가고 있다. 기존에 해 오고 있었던 ‘농어촌 체험 음악회’, ‘교류 음악회’도 스폰서를 구해 실질적인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창원, 마산, 거제의 여성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교류의 장을 만들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기존에 이런 것들 없이도 잘 해왔는데 자꾸 힘들게 일을 벌이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보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런 자극들이 젊은 음악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불러일으킨다면 10년 후의 경남은 분명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남 최초의 창작오페라 ‘논개’, 서울로 수출되는 ‘소나기’

“‘논개’를 작곡하고 지휘까지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오페라 작곡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며 겁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를 작곡할 때는 4명이 같이 작곡을 했습니다. 큰 즐거움을 정해주고 분량을 나누어 작곡했죠. 그렇게 하니 경남에서 오페라 작곡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 더 늘었습니다. 문화사대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짜르트나 베토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노력하는 열정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논개’를 도내 간담회를 통해 문화컨텐츠로 상품화를 시도했었는데 지방 작품을 저평가하는 구태의연한 문화사대주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의 경우는 몇 일 전 서울 강남구민회관의 요청으로 갈라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소나기 마을’에서도 전곡을 공연 했죠.” 그의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항상 몇 발자국 앞서 있다. 그것은 그의 경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클래식은 고상하고 대중음악은 천하다는 이분법을 싫어했던 그는 마산상고 시절 밴드부에서 클래식뿐만 아니라 경음악도 연주했다. 1978년에는 ‘제 2회 MBC대학가요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진주시향 창단 때부터 8년 동안 지휘를 맡았을 때는 정통 클래식을 추구하며 어느 시향 못지 않은 예술단체로 성장시켰다. 대학원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한 후 국악 대학원에서 국악 공부를 다시 한 것도 그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악 공부 후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쇼팽 음악원’에서 현대음악을 공부했고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국립음악원’에서는 지휘를 배웠다.

요즘 그는 새로운 작곡에 몰두하고 있다. ‘토끼의 생각’이라는 대본에 기초한 ‘별주부전’이다.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더욱 판타지적인 뮤지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스토리라서 라스베가스나 뉴욕 공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다른 그의 도전에 다시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모색, 창조경영 마인드를 이식받다

지난 7월23일 성산아트홀 뷔페 내 아트홀에서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장 및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예술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이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기획력 및 경쟁력 향상과 예술경영 및 예술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예술단체 스스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힘을 기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풍류일가 문화마케팅 프로덕션 김우정 대표의 '돈과 예술의 경제학'이란 제목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STX조선해양(주) 홍보팀의 박한규 팀장이 '기업과 예술단체, 상생관계의 구축'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이었고 경남메세나협회의 손갑동 전무의 '문화예술, 경영을 만나면'이란 강의가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예술단체 대표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해결책들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다루어졌고 만찬과 예술단체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의 장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풍류일가 김우정 대표의 '돈과 예술의 경제학' 강의로 시작 경남메세나협회의 류지영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작은 음악회'로 막을 열었다. 연주를 맡은 체임버앙상블 '꼬니-

니꼬'(단장 최천희)는 2007년 경남의 현악연주자와 일본 후쿠오카의 현악연주자에 의해 창단되어 작은 규모로도 고효율의 무대를 창조하는 실력 있는 앙상블로 평가 받고 있으며 협연한 소프라노 권수현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모두를 음악에 빠져 들게 했다.

이어 풍류일가 김우정 대표의 '돈과 예술의 경제학' 강의가 시작되었다. 풍류일가는 문화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마케팅 프로덕션으로, 김우정 대표는 전경련 국내 최연소 연사로서 (위대한 기업의 선택 문화마케팅) (위대한 선택 컬처텔링) 등의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대표는 강의를 통해 미래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예술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예술단체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술의 놀라운 경제효과를 비틀즈, 점프,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니 등을 사례로 설명함으로써 예술가들이 갖추어야 할 경제마인드를 제시했고, 태양의 서커스, 윤이상, 김덕수 사물놀이를 사례로 미래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바로 예술이며 문화콘텐츠가 왜 중요한 요소인지 강조했다.



기업 메세나 활동의 최근 동향 소개

다음으로는 '기업과 예술단체-상생관계의 구축'이란 제목으로 박한규 팀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STX 조선해양(주) 홍보팀의 박한규 팀장은 GS칼텍스에서 홍보기획을 담당했으며, 여성부 정책홍보팀 사무관을 지내 현장에서 얻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메세나 활동의 최근 동향 및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에서 바라 본 예술경영 및 예술마케팅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기업메세나 활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LG아트센터의 사례와 (주)포스코의 로비음악회 및 포항, 광양 지역 전문공연장 운영 사례 그리고 웅진의 광양시 매화축제 지원을 통한 지역행사 지원사례 등 기업메세나 활동의 변화의 흐름을 소개했다. 지역발전과 기업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자리에서는 문화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이 급선무이며 문화 예술의 가치를 지역전체 차원에서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메세나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 경영을 만나면?

경남메세나협회의 손갑동 전무는 '문화예술, 경영을 만나면?'이란 강의를 통해 자원조성 및 고객관점에서 바라본 마케팅 방안, 네트워킹의 기술 등 문화예술 단체의 전략 포인트를 소개했다. '예술공장 두레'의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문화예술 경영에 미션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지 강조했다. 또한 예술단체의 고민인 자원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의 고객 지향적 마케팅 사례를 통해 예술단체의 마케팅 마인드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술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룬 의미 있는 시간

이어진 토론회에서 진행미술협회 김다순 회장은 "예술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예술단체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김재관 사무국장은 "문화예술단체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협력 프로그램 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조성을 기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난리굿패어처구니 손동현 대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설정에 대한 고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10년 후의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싶어졌다. 문화예술단체 실무자의 문화경영마인드가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서울에 가야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서 안타깝다"며 가능하다면 기업의 마케팅부서와 교류하면서 배우고 싶다는 제언을 했다.

경남메세나협회의는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실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경남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코글로닷컴 이금룡 회장
**창조경영으로
 승부하라**

최근에 창조경영이란 단어가 유행이다. 2006년 6월 사장단회의에서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이 앞으로는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하거나 베끼지 말고 삼성만의 차별화된 창조성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계에서는 창조경영이 화두로 등장하고 창조경영을 하기 위하여는 경영자가 창조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최고 경영자과정에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과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직원들과 함께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를 찾는 CEO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창조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객의 감성을 사로 잡고 단순한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예술가가 지니는 창조와 상상력을 경영에도 접목시켜 경쟁업체가 따라 올 수 없는 가치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즉 예술로부터 미래경영을 배우는 것이다. 일본마츠시다 그룹의 창업자 마츠시타고노스케는 “경영은 예술이며 경영자는 경영이라는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경영자는 예술가적 창의성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창의성이 없는 경영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술과 경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미술, 연극, 음악과 같은 예술이 모두 새로운 것에서 창조되는 것처럼 경영도 끊임없이 창조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엘빈 토플러 박사가 제3의 물결 즉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언한지 30년도 안되어서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인 창조와 상상력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기반의 산업에서는 물건 생산만으로 의미를 갖고 고객은 그저 주어진 물건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물건은 넘쳐나고 그 물건 중에서 고객에게 선택받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다.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간 것이다. 소비자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기업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소위 생산과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경쟁력의 원천이 바뀐 것이다. 시장의 주도권이 고객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넘어 오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창조형사회로 넘어 오면서 산업계도 크게 보면 3가지로 변화의 흐름을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 산



업의 약진이다. 우리가 정의한 창조 산업은 영국이 1997년에 입법한 소위 “CREATIVE INDUSTRY LAW”에 입각한 것이다. 디자인, 소설, 뮤지컬, 미술, 음악 등 예술에 기반을 둔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 전략으로 키우는 것이다. 영국의 이러한 전략은 적중하여 현재 영국 전체 GDP의 7% 이상이 이러한 창조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뮤지컬을 비롯하여 웬만한 공연은 영국에서 성공해야 유럽으로 전파되고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세계를 품어줬던 프랑스의 미술도 이제는 영국에 그 자리를 넘겨 주게 되었다. 조안 롤링이라는 작가가 쓴 해리포터의 이야기라는 소설의 부가가치가 한국의 지난 10년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는다고 하니 이러한 예술창조산업의 부가가치와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을 비롯한 공연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서울 옥션을 비롯한 미술품경매 그리고 난타의 성공 등 이 분야의 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확충과 더불어 활기를 띠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자신의 사업에 예술적 가치를 접목시켜서 일류회사로 만들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바 관람객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던 남이섬의 경우 디자이너 출신 강우현 사장이 취임하여 “남이섬 예술공화국”이라는 기치아래 지난 6년간 10배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시켜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대규모 농원을 엔터테인먼트의 모델로 만든 에버랜드의 허태학 사장, 그리고 커피의 신개념을 도입한 민들레영토의 지승룡 사장 등 CEO가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접목시킨 사례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영달 회장은 3년전부터 과자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전직원의 예술적 감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AQ(ART QUOTI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직원에게 예술적 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크라운제과에서 쿠크다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자표면에 물결모양의 디자인을 입혔더니 50%이상의 매출신장이 이루어지고 주요 제품의 표면에는 화가들의 그림을 디자인 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몇 년 전에 해태제과를 인수하여 기존사원과 같듯이 예상되었으나 인원을 서로 조율하여 과자 포장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양사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또한 최근 아트 마케팅으로 화제에 오른 대표적인 기업이 제약업체인 종근당이다. 종근당은 두통약인 “펜잘”이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를 “세기의 명약”으로 만들기 위하여 진정한 명작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는다는

아트 마케팅을 구사하여 화제를 모은바 있다. “펜잘큐”정의 제품케이스와 라벨에 쿠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브로흐바우어의 초상”이라는 명화를 사용, 펜잘과 세계명작과의 만남을 시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고 신선한 반응을 주고 있다. 종근당은 이에 더 나아가 2009년 국제아트페어에서 펜잘큐오브제라는 부스를 설치하여 미술업계를 지원하는 메세나 기업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창조경영의 물결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져오고 최근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기업 메세나 활동이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일부를 예술적 활동이나 예술가에게 지원함으로써 그 기업의 예술적 이미지도 높이고 사회적 공헌도 달성하여 창조와 상상력의 밝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세나의 활동에는 기업 CEO의 확고한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고하신 금호재단의 박성용 이사장은 활발한 메세나 활동으로 금호그룹을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이견산업도 매년 정상의 음악회를 개최하여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형유통업체인 “타깃”은 매주 금요일마다 뉴욕현대미술관 입장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칭펀드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성도GL이 지원하는 파주의 헤이리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왔다. 전국에서는 ‘리’단위의 오케스트라단은 유일하다. 가을 하늘 저녁을 수놓은 아름다운 선율은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다. 이러한 창조경영을 주도하는 경영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역할이 종래의 예술가들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한장의 캔버스에 또는 3분 짜리 음악에 한편의 시에 자신의 콘텐츠와 재능을 압축하여 관객이나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현대경영에 있어서 제품이나 콘텐츠로 고객과 시장을 창출하려는 CEO들의 활동과 같은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바야흐로 문화자체가 거대한 창조산업이 되면서 모든 경영에는 고객을 놀라게 하는 상상력과 독창성이 발휘되는 예술가의 혼이 같은 선상에서 발휘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경영자는 예술가의 또다른 이름이다” 라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양한 경영기법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CEO 보다는 예술적 감성을 갖고 고객의 감성을 이해하면서 문화와 예술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CEO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스텐데이비스의 “자신을 예술가로 일을 예술로 고객을 관중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 한 것이 더욱 생각나는 시점이다. 🌿



글쓴이 이금룡

온라인 무역포털 코글로닷컴 회장. 대형 할인점 시장을 예측하며 삼성홈플러스 기획, 인터넷 경매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1999년 옥션의 CEO로 취임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션으로 각 분야 1등 기업으로 성장시켜 ‘경영의 고수’, ‘창조 경영의 전도사’로 불린다. 최근 <고수는 확신으로 승부한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경남메세나와 함께한 지난 2년, 그리고 문화의 미래가치

9월 24일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난 2년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메세나 활동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경남대 문화컨텐츠학과 김종원 교수, STX조선해양(주) 박한규 홍보팀장, 서울이비인후과병원 정태기 원장, 극단미소 천영훈 대표,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상필 차석 그리고 경남메세나협의회 손갑동 전무가 열띤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경남메세나협의회 손갑동전무의 사업성과 보고가 약 20분 정도에 걸쳐 발표되었다.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낸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과, 회원사 협력사업으로 2009년에 신규로 시작한 경남미술작품 대여사업, 회원사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예술기행 사업 등의 진행 현황 그리고 회원사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의 구체적인 진행 성과가 발표되었고 그 밖에 문화나눔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경남메세나대회 등 지난 2년간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던 각종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이 진솔하게 전달되었다. 이어 손갑동 전무의 사회로 좌담회가 시작되었다.

손갑동 전무 :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린 지난 2년간의 각종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경남메세나협의회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보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

천영훈 대표 : 우선 저희 예술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기업체와 경남메세나협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주식회사 동환과의 결연을 통해 소극장 공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활발한 연극 무대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메세나 결연 전에는 계획하

지 못했던 일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게 되어 극단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을 통해 얻어 낸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피드백 해야

김종원 교수 : 저는 그동안 비교적 가까이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 활동과 성과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저는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결정된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지원한 기업이 얻어낸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피드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 유일의 메세나협회로서 구조화에 성공

박한규 팀장 : 1990년대 들어 국내에 메세나가 도입된 후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문화예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경남 지역은 그에 비하면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경남에서 지방 유일의 메세나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구조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 내 예술단체들이 기업들의 지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생력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도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잘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메세나 활동에 지원을 늦추지 않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에 따르는 의미 있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실현된 시점에서

이제는 질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정태기 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쪽과 지원받는 쪽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이비인후과병원 원장으로서 대안공간 마루를 지원하고 있고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이사장으로서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 지역 문화에 대한 기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실현된 시점에서 이제는 질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메세나협회 규정상 예술 단체는 한 개의 기업으로부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도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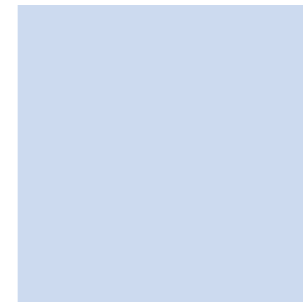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의회가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어

김상필 차석 : 우선 공무원들이 해야 할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경남메세나협의회가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금 예산이 해마다 늘어날 수는 없지만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잘 해주고 있어서 올해도 증액되었습니다. 계속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팀장 : 적절한 시점에 목표를 명확히 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친분이나 지역적 연고 등으로 결연하다 보면 기업들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실질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쓴 돈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라는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꾸준히 만들어져야 하며 연 몇 회 이상 찾아가는 공연을 해야한다는 식의 부담감은 주어져야 합니다.

천영훈 대표 : 단체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은 단체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원을 넘어 간섭이





된다면 오히려 지원금을 안 받고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손갑동 전무 : 실무자로서 처음부터 고민해 오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를 모델로 시작했으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서울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운영하다 보니 지방에서의 활동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소재 대기업의 CEO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이해도에는 지방의 CEO들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만의 아이덴티티와 석세스 스토리가 필요해

박한규 팀장 : 그런 측면에서 아이덴티티와 석세스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후원하는 어떤 단체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화에 초점을 맞추고 싶는데 한국메세나협의회와 아이템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가 다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결혼 이민자에 대한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공감과 참여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과거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형태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정태기 원장 : 베네수엘라에서 빈민가 소년들에 대한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가난과 마약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이 바로 특화된 문화예술활동의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원 교수 : 단체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원

을 통해 좋은 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반면 그 예술단체의 자생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남 전체의 문화 파워를 생각해 볼 때 만약 기업의 지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한규 팀장 : 우선 규모나 장르를 고려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소외된 단체의 비난이나 혜택 받은 단체의 나태함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갑동 전무 : 우수한 단체를 더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김종원 교수 : 메세나의 주 목적은 사회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키우느냐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기업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들이 매개자가 되어서 문화적 가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갑동 전무 : 문화예술단체들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 있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쟁력 없는 활동에 대해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한규 팀장 : 펀더멘털을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영국제음악제와 같이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일들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이름으로 통영국제음악제를 후원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제 지역의 대우나 삼성 같은 기업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갑동 전무 : 지역에서는 메세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메세나에 대한 발전된 이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세나 관련 포럼을 만들어 같이 연구하기를 기대해

정태기 원장 : 공부하면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될 수 있듯이 메세나 관련 포럼을 만들어 같이 연구한다면 전문가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지금 모인 사람들끼리라도 포럼을 만들어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한규 팀장 : 메세나 전문가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문화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체계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들이 찾아내고 만들어 가면 됩니다.

손갑동 전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히 고려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예술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예술단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김종원 교수 : 지금은 기업이 예술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술단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술단체가 기업을 푸시해서 기업과 고객을 분석하고 어떤 문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인가를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하나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활동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도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태기 원장 : 저희 병원은 대안공간 마루와 7년째 교류를 하

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지원금이 대안공간 마루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대안공간 마루에서도 어떻게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림을 계약기간보다 자주 바꿔주고 전시회를 여는데도 아주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림교실'을 열어 매주 한 번씩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마루의 단원들을 식구로 생각하고 그 쪽도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갑동 전무 : 오늘 2시간여에 걸쳐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은 경남메세나협의회 양적 성장의 시기였다면 오늘부터는 질적인 성장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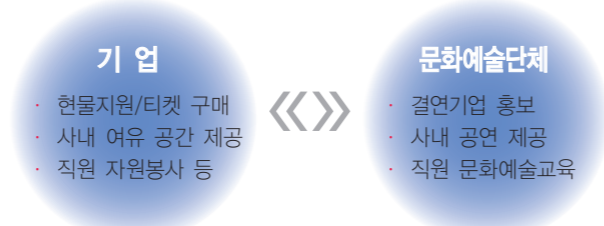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적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메세나협의회로서 각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연구하여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09 사업계획 및 현황

GYEONGNAM MECENAT
 GYEONGNAM MECENAT
 GYEONGNAM MECENAT

1.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프로그램
 - 기업은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창조적인 문화경영에 활용
 - 예술단체는 결연기업에 대해 사내공연, 공연(전시) 초대, 기업홍보, 복지시설 공연 공동 주최,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경영활동 지원
- 2009년 45개팀 결연목표 (2008년 연간 29팀 결연)
 - 2009년 상반기 중 24개팀 결연 확정
 - 2009년 하반기 중 16개팀 결연 확정
 - 2009년 하반기 중 5개팀 추가 결연 추진
- 결연예술단체장 간담회 개최
 - 내용 : 결연기업과의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
 - 시간 : 2009. 10. 8 (목) 10:30~
 - 장소 : 창원인터내셔널호텔 뷔페



2009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중소기업의 예술지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경남도와 공동 추진
 - 중소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지원금을 추가로 제공
 -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 확대로 공공예산의 2배 효과
- 예술단체 대상 매칭펀드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3. 24 (화) 김해문화의전당
 - 2009. 3. 25 (수) 창원시선관위대회의실
 - 2009. 3. 27 (금) 진주시청 대회의실
- 2009년도 경상남도지원금 총액 : 4억원
 - 2009. 10월 현재 385백만원 지원 확정



2.회원사 협력 사업(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 경남 미술작품 대여사업 (2009 신규사업)
 - 도내 작가들의 수준높은 미술작품을 기업체에 대여전시
 - 미술작품 대여료 6개월(작품가의 월 1.5%적용), 1년(작품가의 월 1%적용) 단위로 책정
 - 상반기중 사업 개시 및 홍보 실시(연간 20건 목표)
 - 2009. 10월 현재 1건 진행 : (주)포스텍(4점 대여 및 비치)
 - 회원사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2009 신규사업)
 - 사내 예술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등을 지원 (연간 20건 목표)
 - 기업에서 희망하는 예술분야에 대해 1주일에 1-2회 정도 전문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 추천 등
 - 회원사일 경우 예술강사로, 예술동아리 공연비, 예술관련 봉사활동비, 문학동아리 도서구입비 등 지원
 - 2009. 10월 현재 3건 진행 : 경남은행 합창단 / STX조선해양(주) 통기타 동아리 '통소리' / 동환산업(주) 독서동아리
- ※회원기업일 경우 연 1회 경남메세나협의회가 100만원까지 지원 (회원사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기업체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 기업체 내 각종 행사시 (창립기념일, 신입사원연수, 문화송년회 등)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해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음악, 연극 등 문화공연 제공
- 2009. 10월 현재 4개사 공연 진행(연간 20건 목표)
- 2009 문화송년회 캠페인 전개(홍보리플렛 제작-회원사 등 1,300여개처 발송)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특별한 송년회>

- 감동과 참여의 기쁨이 함께하는 문화송년회
- 기업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회원사당 공연비용 50%(100만원 한도)를 협의회가 지원
- 주요 프로그램
 - 7080추억의 판과 영화음악
 - 세대공감 옛 가락의 신명
 - 품격있는 클래식 이야기
 - 클래식과 국악이 이루어지는 퓨전음악회
 - 전직원이 참여하는 100인의 사물놀이

-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에게 도내 문화예술회관의 우수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9월중 50건 추진 (티켓구입제공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점프' 관람 등)
 - 추가 추진중
- 2009 문화예술 기행 (2009 신규사업)
 - 회원사 임직원 가족 대상 지역내 예술체험 테마기행 사업
 - 일시 : 2009. 9. 13(일) 10:00~19:00
 - 여행지 : 하동(섬진강을 따라 가는 문화예술 기행)
 - 프로그램 : 백련리 도자 체험, 북천 코스모스 축제관람, 토지문학체험 평사리길 걷기, 최참판댁 관람 등
- 지정기탁 사업
 - 결연지원금 이외 회원기업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행사 협찬, 후원 등)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 2009. 10월 현재 1건 진행



3.문화나눔 사업

-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양육 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상반기(5월) 1회, 하반기(8월) 1회 실시
 - 2009. 5. 2(토) 창원성산아트홀(창원어린이국악단) / 112명 관람
 - 2009. 8. 8(토) 거제문화예술회관(피아니스트 백해선의 바바이이야기) / 200명 관람
- 찾아가는 메세나
 - 학교, 사회복지시설, 농촌 등 문화소외계층 방문 공연
 - 도내 20여개 읍면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당극 <뒤집기 흥부전>공연
 - 2009. 10월 현재 11회 공연 진행



4. 연구 및 홍보 사업

● <경남메세나> 발간



- 2008년 5월 창간/유관기관/도내 대기업, 중견기업/회원사/예술단체 등에 배부
- 내용구성 :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활동 소개 등
- 2009. 1. 31 제3호 발간(2천부)
- 2009. 6. 15 제4호 발간(2천부)
- 2009. 10. 15 제5호 발간(2천부)

● 문화경영 세미나 및 기획위원회 운영

- 문화경영, 문화마케팅에 관한 심포지엄/세미나 및 기획위원회 운영(연 2회)
- 상반기 1회 진행(2009. 2월) / 하반기(11월 예정)

<기획위원회>

- 구성 : 협의회 임원진 회원사, 결연회원사, 기타 추천 회원사의 실무진들로 구성(약 50여명)
- 운영방안 : 협의회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메세나 활동 사례 교류 등

● 문화경영 도서 보급

- 문화경영 관련도서를 연 1~2회 회원기업에 배부(하반기 예정)

● 2009 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샵 (2009 신규사업)

- 예술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경영 워크샵
- 2009. 7. 23(목) 14:00~19:00, 창원성산아트비페네 아트홀
- 강의 : 돈과 예술의 경제학(풍류일가 김우정 대표), 기업과 예술단체 상생관계 구축(STX조선해양(주) 박한규 홍보팀장)
- 강의 및 토론 : 문화예술, 경영을 만나면?

● 조사연구 사업

- 메세나 사업의 조사연구 용역 및 메세나 전문인력 교육

5. 경남메세나 대회

● '2009 경남메세나상' 시행



-메세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

- 부 문 : 기업(기업출연 재단 포함)부문, 개인 부문, Arts & Business 부문, 문화예술영재 부문
- '2009 경남메세나상' 응모 및 추천
- 대상 : 기업, 기업출연 재단,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등
- 2009년 10월 15일까지 응모 및 추천완료

● 2009 경남메세나대회 개최(12월 초 예정)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
- 진행내용
- 메세나 갤러리(도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사진 전시)
-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

6. 신규 회원 모집

- 도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타겟 기업 : 도내 대기업/중견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기업관련 단체
- 2009. 10월 현재 회원수 : 163명 * 2008년말 회원수 : 156명



» 경남오페라단

제1공연
이제 인데라 "카르멘"



- 공연장소 :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 공연시간 : 2009. 10. 29(목) ~ 31(토) 19:30
- 티켓가격 : VIP석 100,000 / R석 70,000
A석 40,000 / B석 30,000
- 문 의 : 055) 266-5580

» 평사리 문학관

김훈 소설가 초청 예정
평사리 달빛낭독회



- 공연시간 : 2009. 11. 1(일) 19:00
- 공연장소 : 하동 평사리 최참판댁 사랑채
- 문 의 : 882-2675, 011-886-5410

» 극단 마루

제1공연
'듣픈 연극'



- 공연시간 및 장소
- 밀양청소년수련관 : 2009. 11. 20(금) ~ 11. 21(토) 19:30
- 창원 연극사랑 창원아트홀 : 2009. 11. 27(금) ~ 11. 28(토) 19:30
- 티켓가격 : 전석 15,000
- 문 의 : 011-868-4464

» 창원큰들

제1공연
'13이명 나무놀이'



- 공연시간 : 2009. 12. 5(토) 15:00, 19:00
- 공연장소 : 창원성산아트홀 대공연장
- 티켓가격 : 전석 20,000
- 문 의 : 055) 606-0802

신규회원 소개

(회원사명 가나다순)

구분	회원사명	직위	대표자	비고
기업회원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인호	
	(주)국제전기	대표이사	황정봉	
	명제한의원	대표원장	이동준	
	시영건설(주)	대표이사	조경용	
	주용테크	대표	류선재	
	(주)중앙금속	대표이사	정영건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5호를 읽은 소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1. 이번 호를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소감을 적어주세요.
2.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칼럼 3개를 적어주세요.
3. 다음 호에 추천하고 싶은 칼럼의 주제를 적어주세요.
4. 연락처(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접수기간 : 2009년 11월 15일 까지

보내실 곳 : ①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정보가 있는 공간> → <메세나지> → <소감문 남기기> 코너
 ②E-MAIL (gnmecenat@gnmecenat.or.kr)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제안하는

문/화/송/년/회

품격있고 특별한 송년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공연의 감동과 참여의 기쁨이 함께하는 문화송년회.
 고객·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송년회가 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기업체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합니다.
- * 송년회뿐 아니라 신년회, 직원연수,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기업회원사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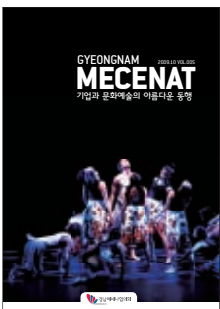
- 7080 추억의 팝과 영화음악
- 세대공감 옛 가락의 신명
- 품격있는 클래식 이야기
-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퓨전음악회
- 전직원이 참여하는 100인의 사물놀이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행**
아름다운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



COVER STORY

손관중 & 가림다현대무용단 공연모습 (2009 마산국제춤축제)
문운수치과의원과 결연한 경남발레단은 6월 2일(화)부터 7일(일)까지 마산 3,15아트센터와 창동예술소극장에서 춤을 통한 문화소통 '2009 마산국제춤축제'를 개최, 외국팀을 비롯한 무용단과 무용가가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쳤다.